

전북을 기쁘게 한 공로 인정... 제26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

오용기·최정숙·김규완·최재근씨 대상

제26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이 27일 오후 2시 전북여성가족재단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간인 부문 오용기(75, 전주인문학연구원 구실 원장)씨, 최정숙(66, 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협의회 회 고문)씨, 공무원 부문에 김규완(60, 순창군청 사회복지 5급)씨, 경찰공무원 부문 최재근(51, 정읍경찰서 첩보 파출소 경위)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의 공적사항을 보면 오용기씨는 1989년부터 무료서당을 개설해 한문과 도덕교육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정서함양과 공존공생의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재능기부를 통해 헌신적인 도움을 준 공로로 수상을 받았다.

최정숙씨는 1996년부터 적십자사 부안 계화 봉사위원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26년 동안 재난 구호, 나눔, 돌기 등 5,030시간 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어르신들의 효도관광에 도움을 주는 등 노인공익의 봉사활동의 공적이 있어 수상을 받았으며, 김규완씨는 1991년부터 순창군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3년 동안 친절과 창의적 자세로 대민복지 행정업무 수행, 특기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고장 난 전동차 등 고가의 보장용구 지원, 나눔회 결성과 공직자로서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는 등 솔선수범한 공이 있어 수상받았다.

최재근씨는 2016년 정읍경찰서에서 지역경찰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내 치안업무는 물론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경찰청 내 사랑 나눔 봉사원(7개 봉사단체에 휴무일 이용 봉사활동), 헌혈 봉사 실적 전국 1위(309회) 등 이웃사랑 나눔의 정이 돈독한 경찰관으로 귀감이 돼 수상받게 됐다.

축하의 말을 전하는 전북도민일보 신효관 사장은 미국 남북전쟁 참전용사이자 정치지도자였던 로버트 그린 밌링거의 말을 인용해 "남을 도와주는 손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입보다 성스럽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김관영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여러 많은 행사를 다녀보았지만 어느 행사



제26회 친절봉사대상 시상식이 27일 오후 2시 전북여성가족재단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과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다 가슴 따뜻하고 울림이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수상자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도 축사에서 "수상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이며,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는 수상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선행이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든다"며, "친절을 통해 사회를 움직이고, 봉사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힘을 발휘한다"고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격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회기로 인해 영상 축하메시지로, 중국에 공무원출장 중인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도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순창군의회 신정기 의장과 이성용 의원,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 전북도민일보 김택수 회장과 신

효관 사장, 호남고속 김병수 사장, 임해민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장, 친봉회 임규태 회장과 회원 등 각계각층에서 100명의 나눔을 실천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 축하하고 친절봉사의 참 의미를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친절봉사대상은 1998년부터 전북도민일보에서 사회의 숨은 봉사자를 찾아 삼금 200만 원과 함께 상패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26회에 이르고 있다.

친절봉사대상을 수상하고 나서는 100여 명이 넘는 수상자들이 모여 친절봉사회는 단체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매월·부정기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해 여름철에는 삼계탕 봉사, 겨울철에는 연탄 봉사를 펼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전하고 있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이만호 기자



전주대 출신 축구선수 6명 대학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 축구부 출신 김성곤, 김우빈, 김한서, 이기준, 정세준, 홍재석 선수가 대학 발전을 위해 새달라며 기부금 3,000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7일 대학본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경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선수들을 대신해 선수의 부모님과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주대 축구부 출신으로 2022 제18회 1~2학년 축구대회 우승,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3위, 제58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3위, U리그 왕중왕전 3위, 2023 제19회 1, 2학년 축구대회 3위 등 입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부금은 전주대 축구부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진배 총장은 "김성곤, 김우빈, 김한서, 이기준, 정세준, 홍재석 선수는 전주대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들"이라며 "앞으로도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후배 선수 양성을 위해 학교도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동충동, '국수는 마을 돌봄을 싣고' 행사 진행

남원시 동충동은 지난 26일, 남원시사회복지관과 동 부녀회가 협업한 우리 동네 돌봄단을 활용한 사회적기업가 관계망 형성사업의 일환으로 고독사 위험가구 대상자들을 초대해 '국수는 마을 돌봄을 싣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국수 나누기 행사는 건강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 수 100명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유대감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운봉로타리클럽에 칭찬패 수여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관내 기관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소개하는 '운봉읍 행복 전영 칭찬 릴레이' 6월 주인공으로 운봉로타리클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칭찬 릴레이는 3월부터 시작한 분위기 혁신 시책으로, 매월 칭찬 대상 1인을 선정해 그 사유를 주민에게 알리고 대상자에게 칭찬패를 전달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화합과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칭찬 주인공인 운봉로타리클럽은 현충일 행사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및 주민 200여 명에게 자장면을 대접하며 봉사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소비자연합 김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가 지난 25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숙지하기 위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숙지하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초청 강사인 김유진(전북신용보증재단 성장지원센터) 강사는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 사례, 피해 유형에 따른 예방법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전화금융사기의 수법과 사전 예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교육대상자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주 시민축구단, 홈 6연승 도전... 30일 노원유나이티드와 경기

전주 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홈 6연승에 도전한다. 전주는 오는 30일 전주대운동장에서 서울노원유나이티드와 K4리그 홈 경기를 갖는다.

현재 승점 22점(6승4무3패)으로 4위를 달리고 전주는 이날 승리로 K4리그 홈 6연승과 함께 상위권 안착을 노린다. 전주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FC충주에게 1대 2로 아쉽게 패했지만 이날 승리로 반방 불패 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올 시즌 전주는 홈 6경기에서 5승 1무로 팀 창단 이래 처음으로 홈 6연승과 7경기 무패라는 두 토끼 사냥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주는 다양한 전술과 공격 축구로 많은 골을 넣어 승리와 함께 재미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공격에서 박배근과 오태환이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인다.

또 중원에서 양태열과 이학선, 신원호, 김도형, 심요셉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



수비에서는 여재욱과 김창수, 박광운이 상대의 공격을 원천 차단하고, 골문은 김재환이 클린시트에 도전한다. 양영철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2연패를 했지만, 선수단 분위기는 좋다"면서 "홈에서 열리는 만큼 화끈한 공격축구를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선사하고, 반드시 홈 6연승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진안농협 행복이음봉사단-농협 손해보험 전북, 삼계탕 나눔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중) 행복이음봉사단(단장 이완승)은 지난 26일 영농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고령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24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농협 김문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NH농협손해보험 전경에 국장, 농협중앙회 변성섭 진안군지부장, 진안군자원봉사 김요섭 센터장, 진안농협 고향주부모임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진안농협의 발전에 기여한 고령조합원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김문중 조합장은 "행복이음봉사단의 따뜻한 마음이 무더위 영농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되어 땀의 결실이 풍요로움으로 가득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경에 국장은 "삼계탕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피곤할 수 있지만 시종일관 즐거운 모습으로 일하는 진안농협처럼 조합원들을 위하고 농업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범 농협이 하나 되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이완승 단장은 "진안농협 행복이음봉사단의 소중한 마음이 건강한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값진 선물을 준비해 찾아와주신 전경에 국장님과 영농회별로 삼계탕 전달을 도와주신 영농회장님,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16회 고창군 농협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고창군 관내 지역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 도모를 위해 '제16회 고창군 농협기 게이트볼 대회'를 지난 26일 고창읍 실내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백영종 고창군 조합 운영협의회장, 관내 고창, 선운산, 대성, 해리농협 조합장, 임직원, 원로 조합원 게이트볼 회원 150여명이 함께 했다.

고창군 농협기 게이트볼 대회는 지난 2008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원로 조합원들의 게이트볼 경기를 통한 건강증진과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군지부와 지역농협 공동 주관으로 개최, 올해로 16회째 대회를 맞이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 날 대회에도 각 읍·면 14개 팀 1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평소 같고 닦은 실력과 기량을 펼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봉사왕', 여름철 대비 삼계탕 300마리 기부

남원시는 관내 봉사단체 '봉사왕'에서 여름철 폭염을 대비, 저소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삼계탕 300마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봉사왕은 2021년 봉사단체를 설립하여 2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매년 삼계탕 나눔 및 반찬 전달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도 작년 이어 삼계탕 300마리를 전달해 덕과면, 주천면, 주생면, 동충동, 금동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삼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063-620-633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왕흥석 대표는 "앞으로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며, 이에 최경식 시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삼계탕을 후원한 봉사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복지시설에 물품 전달

무주군은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받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은 삼프와 세계 등 1천6백 상자(11톤 규모)로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측은 24일 환인호 무주군수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이규영 회장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정안 회장은 "무주군에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의 후원이 이웃들의 용기를 북돋우고 꿈을 뒷받침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